영어어문교육 *제26권* 2호 2020년 여름
https://doi.org/10.35828/etak.2020.26.2.65

지방사립대 영어영문학과 재학생들의 토익 성적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사례 연구

김 지 나
(호서대학교)

Kim, Gina (2020).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TOEIC scores for English majors at a Korean university: A case stud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6*(2), 65-81.

In Korea, the TOEIC test is commonly used in the application for seeking jobs. Therefore, for university students, especially those who major in English, obtaining a high TOEIC score is a huge goa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 TOEIC scores for English majors at a university in Chungnam Province, Korea. A total of 99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by administering a questionnaire with 35 items. The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More students take the official TOEIC test as their grades get higher and their scores rise significantly. More female students take the test and their scores were higher than male students. Also, the longer the preparation period the higher the score got. The influencing factors between the top 25% and the bottom 25% of the students were the number of tests taken and their goal scores. According to regression analysis, it is indicated that the number of times the students take the test is the predicting factor for the students' TOEIC scores. Based on the findings, it can be implied that motivation is important in TOEIC and different methods and strategies should be taught and used depending on the students' TOEIC scores.

[TOEIC test/English majors/TOEIC score/university student, 토익 시험/영어 전공자/토익 점수/대학생]

I. 서론

국내에서 토익(TOEIC) 성적표는 취업 지원을 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함께 지원자의 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된다. 2015년도 상반기 채용 시 국내 100대 기업에서 토익을 사용했다고 한국 토익위원회(2015)는 밝힌 바 있다. 청년층 취업난이 사회적인 문제인 가운데 대학생

들은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높은 토익 성적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며 특히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에게 더욱 그러하다. 2019년 상반기 신입 공채 취업준비생의 취업 스펙에 관한 기사에 따르면 그들의 평균 토익점수가 772점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조지원, 2019).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토익 관련 수업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토익 시험을 졸업인증제로 시행하는 학교가 99개로 보고되었다(한국토익위원회, 2015). 연간 평균 200만 명 이상이 토익 시험을 보고 있고 최근 6년간 1200만 명이 토익 시험에 응시했다고 보도되었으며 이 숫자는 수능 응시자의 3배가 넘는 인원이라고 한다(강봉진, 2017).

한편으로, 토익 고득점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지순정, 2011) 높은 토익 점수를 보유한 자가 곧 영어 능력 우수자라고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Lee, 2005) 국내에서 토익이, 특히 취업시장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측정 도구임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국내의 수많은 토익 시험 대비자들에게 토익 공부는 얼마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연구를 통해 알리는 것이 영어 교육자로서의 임무이자 연구자의 자세라고 생각된다. 졸업 전까지 높은 토익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고 느끼는 대학생 중 특히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본 사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지방사립대의 영어영문학과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1학년 입학 당시 낮은 토익점수를 보유하고 있기에 토익 점수 향상 방법과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사립대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의 학년, 성별, 토익 시험 대비 기간에 따른 점수는 어떠한가?

둘째, 그들의 사용하는 토익 학습 방법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토익 점수의 차이가 있나?

셋째, 그들 중 토익 고득점자 상위 25% 그룹과 하위 25% 그룹을 구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토익 성적 향상 요인 관련 선행연구

대학생들의 토익 성적 향상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의 종류로는 교수 방법을 요인으로 한 연구와 학생들의 전략사용을 다룬 연구 그리고 토익 수업의 효과를 나타낸 연구가 있다.

영어 듣기 향상 기법 중 쉐도잉(shadowing)에 관한 Park 그리고 Son(2016)

의 연구에 따르면 토익 LC(청해)를 향상시키는 쉐도잉의 방법은 기간(duration)보다는 강도(intensity)가 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충청도의 대학생 199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토익 수업 중 20분씩 쉐도잉을 6주를 한 그룹과 12주를 진행한 그룹의 성적의 차이는 없었으나 20분씩 주 2회 쉐도잉을 한 그룹보다 주 4회 쉐도잉을 한 그룹의 성적이 향상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대학의 1학년생 97명을 대상으로 한 이명관(2011)의 연구에서는 토익 RC(독해) 수업에서의 어휘 강조와 문법 강조의 효과성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어휘를 강조한 반과 문법을 강조한 반 모두 유의미한 점수의 향상이 있었으나 문법을 강조한 반의 향상이 더 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설문의 결과 문법강조 반 학생들이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동기가 더 컸으며 토익 RC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학생이 더 많았다.

토익과 학습전략에 관한 연구를 보면, 대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토익 점수에 따른 학습전략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토익 점수가 높은(800점 이상) 집단에서 더 전력 사용량이 많다고 밝힌 여숙림(2015)의 연구가 있는데 토익 800점 이상의 학생들이 전략 중에서도 인지 전략과 기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영어 학습전략이 대학생 토익 성적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를 보기 위한 정병삼(2011)의 연구에서는 경북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2년간 47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학습전략 사용은 대학생들의 토익 성적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다. 영어 학습전략의 초기치가 높을수록 토익 성적의 초기치와 성장률이 높고 또한 영어 학습전략의 성장률이 높을수록 토익 성적의 향상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다.

방학 중 단기 집중 영어캠프에 참여한 76명의 대학생의 토익 점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박현숙과 최미옥(2013)에 따르면 510점을 기준으로 토익 실전반과 토익 기초반으로 나누어 3주간 캠프를 진행한 결과 두 반 모두 LC와 RC 부분에 성적 향상을 가져왔지만, 특히 510점 미만인 학생들의 경우 LC의 점수가 매우 크게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교내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3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120명의 대학생이 토익 캠프에 참여한 결과 평균 140점의 토익 점수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한 김지나(2014)의 연구에서는 토익 점수 상승률과 출석률의 상관관계를 밝혔으며 단기 토익 프로그램에서의 출석률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블랜디드 방식의 토익 수업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Im(2020)의 연구 대상은 2016년의 지방대 2학년 학생 117명이었다. 매주 10개의 토익 문제를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풀게 한 후 두 방식으로 각각 사전과 사후 시험을 시행한 결과, 두 방법 모두 토익 성적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온라인으로 한 방법이 조금 더 높은 향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토익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관련 선행연구

대학생들의 토익, 토익 수업, 교수 방법에 대한 인식 및 태도와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이 토익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주미진(2009)의 연구는 121명의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우선 토익이 좋은 시험이 아니라고 인식한 학생이 41.3%인 반면 좋은 시험이라 답한 학생은 12.4%에 불과하였다. 토익 수업에 대해서도 유의하게 많은 학생이 토익 수업이 전반적인 영어 능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며 단지 토익 시험 대비만을 위한 수업으로 간주했다고 하였다. 또한, 기존 방식의 토익 수업보다 의사소통 중심 교수반의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이러한 긍정적 태도가 토익 성적 향상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 대학생의 토익에 대한 태도와 토익 학습 효과의 연관성에 관한 이동명, 홍광희 그리고 황규홍(2013b)의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의 대학생 중 토익 시험 응시 경험이 있는 학생 351명의 평균 점수가 570점이었고 평균 3회를 응시하였으며 평균 토익 시험 대비 기간은 8개월이라고 밝혔는데 그들은 고학년이 되면서 토익을 영어 능력 향상 도구로 보는 경향이 낮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은 실제 토익 점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영어 토익 수업에서 수준별 학습자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남은희(2016)는 수도권 대학생 9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토익 500점 미만자들은 졸업인증제 통과가 목적이었으며 500점 이상자들은 본인의 영어 능력 향상이라고 답하였지만 두 그룹 다 토익을 취업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졸업 전 토익 점수 취득이 다른 전공을 가진 학생들에 비해 당연히 요구될 뿐 아니라 높은 점수가 요구되는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토익 성적 향상에 미치는 요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에 위치한 사립대학인 H대학 영어영문학 전공자(이하 H대학 영문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토익 시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재학생 137명에게 설문 조사를 2017년 1학기 학기 초에 실시하였다. 그들 중 모의 토익 점수만 있거나 일부 불성실 답변자 38명을 제외하고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인 토익 시험 성적을 보유한 99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에 대한 학년별 정보 및 성비는 표 2와 표 3과

같이 99명 중 1학년은 11명, 2학년 19명, 3학년 26명, 4학년 43명이며 남학생은 35명 그리고 여학생은 64명이다.

2. 연구절차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두 개 파트로 구성되었으며 총 51개 문항으로 주미진(2009) 그리고 성창섭(2012)의 연구에 사용된 설문 문항들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다(부록 1). 첫 번째 파트는 H대학 영문과 학생들의 신상정보와 관련된 문항과 토익을 위한 학습 유형이나 일반적 특성에 관련된 16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생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문항에서는 학년, 성별, 토익 응시 경험과 횟수, 토익 공부 기간 및 일일 평균 토익 공부시간 그리고 최근에 응시한 토익 성적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토익 학습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 부분에서는 토익 관련 수업 이수 여부와 목표 토익 점수, 토익 RC와 LC 파트의 학습방법 및 토익에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에 대한 질문들이었다.

두 번째 파트는 학생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 그리고 토익 학습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3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 point-Likert scale 방식(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으로 작성되었다. 그 중 토익을 '영어 능력 향상·측정 도구'로 인식하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은 이동명, 홍광희, 황규홍(2013a) 연구에 사용된 요인들을 참고하여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가 연구 도구로서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계수(Cronbach's Alpha)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35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0.661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영어 능력 향상·측정 도구'를 묻는 7개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0.705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래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설문은 측정 도구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설문지의 구성 및 신뢰도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영어능력향상·측정도구	1, 9, 10, 12, 19, 20, 35	7	0.705
전체	1~35	35	0.661

설문지 응답 데이터는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3을 이용하여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학년별, 토익 대비 기간 그리고 토익 학습방법에 따른 토익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Tukey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구

성 요인에 대한 토익 점수대 별 인식은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토익 점수에 따라 상위와 하위 각 25%의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 따른 요인에 대한 차이 검정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의 토익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영어 전공자들의 학년, 성별, 토익 시험 대비 기간에 따른 토익 점수

지방사립대학 영어 전공자들의 토익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H대학 영문과 재학생들의 학년, 성별, 시험대비 기간 그리고 학습방법에 따른 토익 성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

학년별 빈도 및 토익 점수

학년	*N*	%	*M*±*SD*	ForT(p)
1	11	11.11	589±133	4.33 (0.007) **
2	19	19.19	687±146	
3	26	26.26	614±147	
4	43	43.43	717±133	

***p<0.01*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H대학 영문과 학생 중 정규 토익을 본 비율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증가했으며 그들의 토익 점수 또한 상승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평균 토익 점수의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겠다. 전체 응시자 중 1학년은 11.11% 이며 평균 점수가 589점이고 2학년과 3학년은 각각 19.19%, 26.26%이며 4학년은 응시자 중 43.43%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의 평균은 717점으로 Tukey를 사용하여 차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년별 토익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 표 2의 내용은 김지나와 진송화(2017, p.206)에 사용된 것임을 밝힌다.

표 3
성별에 따른 토익 점수

성별	*N*	%	*M*±*SD*	ForT(p)
남	35	35.35	629±150	-2.11 (0.037) *
여	64	64.65	692±140	

*$p<0.05$

성별에 따른 토익 점수를 보니(표 3)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692점으로 남학생보다 63점 정도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동명, 홍광희, 황규홍(2013b)의 연구 결과에서도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대상 중 토익 응시자 여학생 수가 많은 것은 H대학 영문과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간주되며 이것은 전국의 영어영문학 관련 전공자의 성비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토익 대비 기간별 점수

기간	*N*	%	*M*±*SD*	ForT(p)
6개월 미만	65	65.66	637±151	4.54 (0.005) **
1년	18	18.18	697±117	
2년	10	10.10	763±104	
3년	6	6.06	793±89	

**$p<0.01$

토익 시험을 대비하여 얼마나 오래 공부를 하는지와 그에 따른 성적을 분석해보았다. 차이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다중비교 방법으로는 Tukey를 사용하였다. 토익 시험 대비 기간을 알아보니(표 4) 약 66%의 영어 전공자 재학생들이 토익을 6개월 미만 공부를 했다고 답했다. 2년 또는 3년 장기간 공부하는 학생의 수는 각각 10명, 6명으로 적었으나 오랜 기간 토익 공부를 할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과 유사한 결과로 이동명, 황광희, 황규홍(2013b)의 연구에서도 토익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어 전공자들의 토익 학습방법에 따른 토익 점수

H대학 영문과 학생들의 토익 학습방법과 토익점수를 살펴보았다. 토익의 LC와 RC 파트를 병행해서 공부하는지, 출제빈도가 높은 주제별 어휘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지 그리고 토익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학습하는 묻는 설문의 결

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토익 학습방법별 점수

방법	답	*N*	%	*M*±*SD*	ForT(p)
LC와 RC 병행	Y	68	68.69	682±125	1.09 (0.281)
	N	31	31.31	643±183	
주제별 어휘학습	Y	72	72.73	681±138	1.23 (0.223)
	N	27	27.27	641±165	
문제풀이 훈련방식	Y	77	77.78	676±140	0.76 (0.447)
	N	22	22.22	649±167	

LC와 RC 파트에 대한 학습을 병행한 학생은 68명(68.69%)이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31명(31.31%)으로 나타났다. 즉, 토익 공부를 할 때 청해와 독해를 동시에 공부한다는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의 배가 된다. 그러나 차이 검정 결과 병행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와(682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 점수(643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토익 주제별 어휘를 학습하는 학생들은 72.73%로 많았으나 어휘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 점수 차이는 40점으로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토익 어휘학습은 토익 500점 미만인 학생들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남은희(2016)의 연구 결과에 힘을 실어준다. 다시말해 토익 어휘학습은 500점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600점 이상자들에게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또한, 토익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풀이를 통해 훈련하는 영어 전공자는 약 78%로 높았으나 문제풀이를 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평균 점수 차이가 27점에 불과했다.

표 6
하루 평균 토익 학습 시간 및 점수

시간	*N*	%	*M*±*SD*	ForT(p)
1시간 미만	60	60.61	652±152	1.33 (0.259)
1시간	14	14.14	677±114	
2시간	17	17.17	694±156	
3시간	4	4.04	729±41	
4시간	3	3.03	832±97	
4시간 이상	1	1.01	540±0	

H대학 영문과 학생들 중 60.61%의 학생들은 하루 평균 1시간 미만 토익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토익 학습 시간이 길수록 토익 성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은희(2016)의 연구에서 토익 점수 500점 미만의 대학생 학습자들이 토익 공부를 거의 안 하거나 주당 한 시간 미만만 공부한다고 하였고 500점 이상의 학생들은 한두 시간 33.8% 또는 세 시간(12.3%)이라고 답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가장 토익 성적 향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단답형 주관식 질문에는 표 7과 같이 '문제를 반복해서 풀기'라는 응답이 45.45% 나왔으며 다음으로 단어 암기나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 듣기라고 답한 학생의 퍼센트가 각각 14.14%로 나왔다. 쉐도잉이라고 답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약 7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토익 학습방법과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기타'라고 답한 학생들의 답으로는 오답 노트(2명), 해외연수, 스터디 그룹, 기초부터, 영작문, 그리고 영어에 노출이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토익 학습방법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지만 토익이라는 시험 특성상 영어 실력과 구분되는 시험대비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토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 응답에 따른 토익 점수

방법	*N*	%	*M*±*SD*	ForT(p)
문제 반복풀이	45	45.45	666±125	0.93 (0.467)
단어 암기	14	14.14	634±176	
학원/인터넷강의	14	14.14	646±125	
쉐도잉	8	8.08	762±122	
LC 반복 듣기	7	7.07	684±153	
기타	11	11.11	687±214	

3. 토익 점수대 별(상위/하위 그룹) 특성에 관한 결과

토익 점수대 별 그룹 간의 토익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자 H대학 영문과 토익 응시자 중 상위 25%와 하위 25%의 토익 점수를 분석해보았다. 상위 25%의 평균 점수는 849점이며 점수 범위는 770점에서 940점이었다. 하위 25%의 평균은 481점이며 최저 300점에서 최고 590점까지 포함되었다(표 8).

표 8

토익 점수 상위, 하위 그룹 기술통계

구분	그룹	*M±SD*	최저점수	최고점수
정규 토익	상위 25%	849±55	770	940
	하위 25%	481±79	300	590

표 9

토익 점수 상위, 하위 그룹에 따른 특성에 대한 차이 검정

구분	응시횟수		목표점수	
	M±SD	ForT(p)	*M±SD*	ForT(p)
상위그룹	6.58±5.46	3.66 (<.001)**	946±44	9.79 (<.0001)**
하위 그룹	2.50±1.56		784±72	
구분	토익 수업 이수 횟수		영어 능력 향상 도구로 인식	
	M±SD	ForT(p)	M±SD	ForT(p)
상위그룹	1.35±0.80	0.00 (1.00)	3.19±0.52	-0.26 (0.794)
하위 그룹	1.35±0.94		3.78±0.68	
구분	학원의 도움이 필요		혼자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	
	M±SD	ForT(p)	M±SD	ForT(p)
상위그룹	3.08±1.26	-2.14 (0.038)*	2.85±0.92	0.46 (0.646)
하위 그룹	3.73±0.92		2.73±0.87	
구분	단기간 집중적으로 해야 함		장기간 꾸준히 해야 함	
	M±SD	ForT(p)	M±SD	ForT(p)
상위그룹	4.12±1.11	0.79 (0.431)	2.50±1.03	-2.31 (0.025)*
하위 그룹	3.88±0.99		3.15±1.01	

*$p<0.05$, **$p<0.01$

이어서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간의 어떠한 특성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표 9에 제시된 것처럼 토익 시험 응시횟수와 목표점수가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상위 25% 그룹에 속한 학생들은 정규 토익 시험을 평균 6.5회 정도 본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위 그룹의 학생들은 2.5회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은희(2016)의 연구에서 토익 500점 이상인 집단에서는 토익 시험을 5회 또는 그 이상 응시한 학생이 29.2%, 4회 응시자가 10.8%, 3회는 20% 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즉, 토익 시험을 3회 이상 본 학생이 토익 점수 500점 이상자의 60%를 차지했다. 반면,

500점 미만의 경우 토익 시험 1회 응시자가 26.5%, 2회 응시자가 35.3%로 조사되어 토익 시험 응시횟수와 학생들의 점수와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위그룹의 목표점수는 약 946점으로 하위 그룹의 목표인 약 784점보다 162점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 그룹 학생들의 현재 토익 점수 대비 목표점수가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토익점수가 졸업인증제로 사용되어 졸업 전에 750점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하위 그룹에 속한 학생들이 토익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대비 기간에 있어서도 장기간 꾸준히 해야 토익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차이 검정 결과 나타났다. 그러나 토익 수업을 이수한 횟수는 상위그룹과 하위 그룹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토익 관련 수업 이수 여부와 토익 성적과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토익을 '영어 능력 향상 및 측정 도구'라고 인식하는지 여부도 상하위 그룹 간 토익 점수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토익 점수 영향 요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p*	*b*	*s.e*	*β*	*p*	*b*	*s.e*	*β*	*p*
상수	689.69	84.13	-	<.0001**	565.23	100.46	-	<.0001**	561.98	100.86	-	<.0001**
향상 도구	-6.29	26.30	-0.02	0.811	-8.55	25.34	-0.03	0.737	-10.05	25.51	-0.04	0.695
학년			-		10.80	14.52	0.08	0.459	9.29	14.72	0.07	0.530
응시 횟수			-		13.78	4.51	0.35	0.003**	13.36	4.57	0.34	0.004**
대비 기간			-		26.05	17.52	0.16	0.140	25.97	17.57	0.16	0.143
학습 시간			-				-		8.11	11.86	0.06	0.496
R^2	0.00%				23.68%				24.06%			
Adjusted R^2	0.01%				20.43%				19.98%			
F(p)	0.06(0.811)				7.29(<.0001)*				5.89(<.001)**			

*$p<0.05$, **$p<0.01$

지방사립대학 영어 전공자들의 토익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년, 토익 응시횟수, 토익 대비 기간, 하루 평균 토익 학습시

간, 그리고 토익을 '영어 능력 향상·측정 도구'로 인식하는지 등을 변수로 삼아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되었다. Model 1은 변수인 토익을 '영어 능력 향상·측정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종속변수인 토익 점수 설명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Model 2는 '영어 능력 향상· 측정 도구'로 인식, 학년, 응시횟수, 대비 기간 총 네 가지 변수가 토익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예측해 보니 그 결괏값이 R^2 =23.68%로 토익 점수라는 종속변수의 변이 중 약 23.68% 설명된다고 말할 수 있다. F값이 7.29이며 이것의 p값이 <.0001로 '$\beta 1 = \beta 2 = \beta 3 = \beta 4 =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변수들 중 적어도 하나는 종속변수인 토익 점수를 설명하는데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변수의 p-값을 보았을 때 유의한 변수인 응시횟수가 0.003으로 유의수준 5% 하에 유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응시횟수의 비표준화 계수가 13.78로 응시횟수가 1단위 증가하면 토익 13.78점 정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시간을 변수로 추가한 Model 3에서도 응시횟수가 토익 점수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회귀분석 결과 나타난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방사립대의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의 토익 성적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공인 토익 점수를 보유한 H대학 영문과 재학생들 99명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응시 경험자가 증가했으며 1학년(589점)과 4학년(717점)의 평균 토익 점수의 차는 125점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692점으로 남학생들보다 63점 높았으며 여학생 비율도 64.65%로 많았다. 대부분의 학생(65.66%)들이 6개월 미만의 토익 시험 대비 기간을 갖는다고 하였고 대비 기간이 1년씩 길어질수록 토익 점수는 대략 50점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그러므로 유사한 상황의 지방사립대 학생들도 학년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시험대비 기간이 늘어나면서 토익 점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동기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익 공부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LC와 RC를 병행(68.69%)하고 주제별 어휘를 학습(72.73%)하고 문제풀이를 훈련(77.78%)한다고 답하였고 그들의 토익 성적이 높았으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과의 토익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토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을 문제 반복해서 풀기(45.45%)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는 단어 암기, 학원 또는 인터넷 강의라고 각각 14.14%가 답했는데 쉐도잉이라고 답한 (8.08%)의 그룹의 토익 평균이 762점으로 제일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한 토익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상위 25%(770~940점 사이) 그리고 하위 25%(300~590점 사이) 그룹에 따른 차이를 검정해보니 토익 시험 응시횟수 그리고 토익 목표점수가 유의미한 차이로 드러났고 하위 그룹이 토익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 토익은 장기간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토익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토익을 '영어 능력 향상·측정 도구'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학년 또는 학습시간은 유의하지 않고 토익 시험 응시횟수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토익 시험 응시횟수가 중요 요인으로 밝혀졌음으로 토익 점수 향상을 위해 모의 토익 고사 실시 등 여러 차례 토익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사례 연구로 국내의 모든 영어 전공자들에게 일반화될 수는 없으나 지방사립대학의 영어 전공자들의 토익 시험대비에 대한 의미 있는 부분을 밝혔다고 생각한다. 토익이라는 시험이 취업의 필수 스펙 중 하나로 요구되어지는 지금의 현실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졸업을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졸업인증제 시행이 대학생들의 토익 점수 향상의 순기능으로 작용하므로(남은희, 2016) 영어 관련 전공에서는 인증제를 도입 또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헌 연구를 통해 기존 토익 관련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토익 관련 수업이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때 출석률 관리가 중요하고 방학을 이용한 단기 집중 토익 프로그램들의 효과가 입증되었으니 지속적으로 대학에서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길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점수대별로 분반을 하거나 다른 교수법 또는 전략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토익 점수가 낮은(510점 미만) 학생들은 어휘암기 그리고 LC 듣기 훈련이 효과적이며 본 연구 결과 실제로 토익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희망하는 토익 목표점수가 높았으며 영어를 잘하고 싶은 동기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생들에게 동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Littlewood(1994)는 성공적인 언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 현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전략을 개발하여 교육할 것을 제안하였다. 학습자 중심에서 볼 때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교사, 교재 및 과제 그리고 사회적 맥락이라는 요소가 유기적 관계를 이루고 연결되어 있으며 학습자와 관련된 정의적 요소 외에도 전략사용 차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학습자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차경애 2006). 그러나 현재 국내 대학 또는 취업 시장에도 널리 사용되는 토익은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효웅, 박기표, 2003). 영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현우, 이소영(2004)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로서의 공인영어 시험들의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학생들이 수강하는 「영어회화」와 「영작문」 과목들과 토플, 토익. 텝스 점수의 상관을 연구하였는데 토플만 조금 유의할 뿐 토익 시험과 영어회화 또는 영작문 실력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Hwang과 Lee(2009)의 연구에서 독해 시

험을 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전략사용 능력을 터득한다고 보고하며 그 집단이 더 높은 독해 시험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도 토익 시험 응시횟수가 토익 성적을 올려주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학생들은 시험 잘 보는 능력(test taking skills)만을 터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된다.

본 연구는 짧은 기간 내에 토익점수를 많이 향상시켜야하는 부담을 가진 유사한 상황의 지방대학 영어 전공자들에게 토익 시험 대비 방법에 대한 제안 그리고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요인 등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한국의 대학생들, 특히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토익 점수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이며 그에 따른 다양한 전략사용 능력이다. 대학생들이 실제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직업별 필요한 영어 실무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학과별 영어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길 희망하는 바이며 현재의 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과 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 또는 시험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강봉진. (2017). *국가시험까지 평정한 토익*. *매일경제*, 2019년 4월 22일에 검색. http://naver.me/GvLmblRr

김지나. (2014). 대학생 집중 토익 프로그램의 효과 및 참가자의 성적 향상 요인 분석 사례 연구. *영어어문교육, 20*(1), 311-327.

김지나, 진송화. (2017). 영어영문학 전공자들의 토익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례 연구. *언어연구, 33*(2), 201-215.

남은희. (2016). 교양영어 TOEIC 수업에서 수준별 학습자의 토익에 대한 인식과 태도. *영어어문교육, 22*(4), 225-248.

박현숙, 최미옥. (2013). 대학생을 위한 단기 집중 영어캠프가 토익점수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언어학연구, 30*, 149-166.

성창섭. (2012).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TOEIC 응시에 대한 인식 연구. *언어과학, 19*(1), 119-130.

여숙림. (2015).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스타일과 학습전략의 관계: 성별과 토익 점수를 바탕으로. *현대영어영문학, 59*(4), 263-286.

이동명, 홍광희, 황규홍. (2013a).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 응시에 대한 반응 연구. *새한영어영문학회, 55*(2), 233-248.

이동명, 홍광희, 황규홍. (2013b). 한국 대학생 영어학습자들의 토익에 대한 태도와 토익 학습 효과의 연관성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68), 107-124.
이명관. (2011). 토익 독해 수업에서 문법강조와 어휘 강조의 효과. *현대영어영문학, 55*(2), 155-177.
이현우, 이소영. (2004). 의사소통 능력 측정 도구로서의 공인 영어 표준화 시험 타당도. *영어어문교육, 10*(3), 191-210.
이효웅, 박기표. (2003). TOEIC의 신뢰도와 타당도. *영어교육, 58*(4), 27-42.
정병삼. (2011). 영어학습전략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 토익성적 변화에 미치는 종단적 효과. *교육평가연구, 24*(2), 377-399.
조지원. (2019). *상반기 신입 공채 지원 평균 스펙 '학점 3.51·토익 772점'* *조선비즈.* 2019년 4월 11일에 검색.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1/2019031101046.html
주미진. (2009).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을 이용한 토익 수업의 효과성 연구. *언어과학, 16*(2), 83-102.
지순정. (2011). 대학생들의 토익성향분석. *인제논총, 26*(1), 387-414.
차경애. (2006). TOEIC 테스트를 통하여 나타난 대학생의 영어 구사 능력 연구. *외국어교육, 13*(1), 275-295.
한국토익위원회. (2015, 4월). *2015 대학생 실용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TOEIC, TOEIC Speaking 활용현황,* pp.14-15.
Hwang, S., & Lee, M. (2009). Does test taking experience make a difference? : In strategy use and test scores. *Modern English Education, 10*(2), 23-43.
Im, K. (2020). The effects of blended learning on university students' TOE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Mira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25*(1), 475-498.
Lee, E. (2005). A study of TOEIC results and college recruiting polic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1*(3), 57-69.
Littlewood, W. (1984). *Foreig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k, Y., & Son, S. (2016). The effects of the shadowing learning method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The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32*(1), 75-93.

부록

학생설문

설문 Part1(신상정보/토익학습법 관련 문항)

1. 귀하의 학년은?

2. 귀하는 성별은?
3. 귀하의 토익 점수는?
4. 목표 토익 점수는?
5. 토익 시험 대비 기간은?
   6개월 미만 ( ), 1년 ( ), 2년 ( ), 3년 ( )
6. 토익 공부를 하루에 평균 몇 시간 공부하나?
   1시간 미만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4시간 이상
7. 토익 수업 수강 횟수는? 1회 / 2회 / 3회 / 4회
8. 귀하의 거주지는?

토익학습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9. 토익은 혼자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 / 아니오
10. 나는 LC와 RC 공부를 병행한다. 예 / 아니오
11. 나는 토익 주제별 어휘를 학습한다. 예 / 아니오
12. 나는 토익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예 / 아니오
13. 토익은 단기간 집중적으로 해야 하나? 예 / 아니오
14. 토익은 장기간 꾸준히 해야 하나? 예 / 아니오
15. 토익은 학원을 다니는 게 도움이 된다. 예 / 아니오
16. (주관식)토익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설문 Part2(요인별 문항 35개 중 '영어능력향상·측정도구' 인식 관련 문항)

번호	질 문
1	토익은 영어 실력과 상관이 없다.
9	토익은 영어회화에 도움이 된다.
10	토익은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12	토익은 나의 영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이다.
19	토익은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20	토익 점수가 높다는 것은 영어에 대한 기본 능력이 있는 것이다.
35	토익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다.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College

김지나
호서대학교(부교수)
인문사회대학 영어영문학과
충남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31066
Email: ginakim@hoseo.edu

Received: April 16, 2020
Reviewed: May 27, 2020
Revised version received: June 5, 2020